

대구주보

예수 성탄 대축일

2010. 12. 25.(7혜) | 제707호 |



• 그림 : 심순화 가타리나

2010년 교구장 성탄 메시지

사랑과 나눔이 있는 곳에 평화가 있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성탄의 기쁨과 평화가 교우 여러분의 가정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교구 100주년을 앞두고 주님 은총의 해를 준비하는 우리 마음에, 그 옛날 목동들이 처음 들었던 천사들의 합창이 새롭게 울려 퍼지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에 물들어 평화를 잃어버린 우리에게 참된 평화를 주러 오셨습니다. 구세주 탄생의 복된 소식을 알리러 나타난 천사는 목동들에게 이렇게 전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보라, 나는 온 백성에게 큰 기쁨이 될 소식을 너희에게 전한다. 오늘 너희를 위하여 다윗 고을에서 구원자가 태어나셨으니, 주 그리스도이시다. 너희는 포대기에 싸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게 될 터인데, 그것이 너희를 위한 표징이다.”(루카2,10-12)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분께서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세상에 태어나신 것입니다. 하늘의 군대를 거느리고 찬란한 영광에 싸여 나타날 수도 있으셨겠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마구간에서 비천하게 태어나셨습니다. 주님을 알아보는 표징이 바로 가난하게 되신 그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태어나시자마자 당신을 죽이려 드는 악인들 때문에 외국으로 피하셔야 했지만, 돌아가시는 순간까지 당신을 박해하는 이들을 용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평화와는 다릅니다. 예수님의 평화는 그저 싸움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어떤 일이 일어나도 흔들리지 않는, ‘하느님과 올바른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이 평화는 하느님께서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신다는 것, 우리를 위해서라면 무슨 일이든 못하실 일이 없다는 것을 아는 데서 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기심과 폭력으로는 평화를 이룰 수 없습니다.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 불안한 이 시대에 참된 평화가 너무나 간절합니다. 하지만 자기 안에 평화를 간직하지 못한 채 남과 평화롭게 지낼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모시지 않으면 돈이 아무리 많고 군대가 아무리 강하다 한들 진정한 평화는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평화를 이루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을 모시고 살며 그분을 본받는 것입니다. 우리를 부유하게 하시려고 가난하게 되신 주님처럼, 우리도 주님께서 주신 선물들을 이웃과 나눕시다. 우리의 부족함과 죄 많음을 떨치지 않으시는 주님처럼, 우리도 서로 참아주고 받아들이십시오. 이렇게 함으로써 아기 예수님을 우리 가정에, 우리나라에, 이 세상에 참으로 영접하게 됩니다.

“하늘 높은 데서는 하느님께 영광,
땅에서는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

2010년 예수 성탄 대축일에
천주교 대구대교구 교구장 조 환 길 타대오 대주교

조 환 길 타대오

성탄 풍습의 유래와 의미

- 문화홍보실

1. 대림환과 대림초



대림절 동안 성당의 제대 앞이나 가정에서 꾸미는 대림환은 사철나무 가지를 둥글게 엮어 만듭니다. 가정에서는 보통 집 안의 기도하는 장소에 장식하지만, 서양에서는 집의 대문에 장식하기도 합니다. 가끔 대림환만 꾸며 놓기도 하지만 보통은 대림환 안에 네 개의 초를 세워 한 주에 하나씩 늘려가며 불을 켜게 되는데, 이 네 개의 초를 대림초라고 합니다.

대림환의 둥근 형상은 시작도 마침도 없이 영원하신 하느님을, 사철나무의 푸른색은 희망과 미래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대림환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러 오신 영원한 생명에 대한 바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네 개의 대림초 색깔은 짙은 보랏빛에서 흰색으로 점차 엷어지는데, 이 순서로 불을 밝힙니다. 이것은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예수님의 빛이 점차 다가옴을 나타냅니다.

2. “크리스마스”라는 이름은 어디에서?



성탄절은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태어나신 것을 기념하는 기쁜 날입니다. 크리스마스(Christmas)라는 영어 명칭이 널리 쓰이고 있습니다만, 이 단어는 Christ-Mass, 곧 “그리스도님께 드리는 미사”라는 말이 줄어든 것으로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신 아기 예수님께 경배 드리는 날이라는 뜻입니다. 더러 X-mas라고도 적는데, 이 때의 X는 영어의 ‘엑스’가 아니고 그리스말 ‘Χριστος’ (그리스도)의 첫 글자 ‘키’입니다.

3. 산타클로스



‘산타클로스’ 풍습은 니콜라오 성인(Saint Nicholas)에게서 유래한 것입니다. 니콜라오 성인은 오늘날의 터키에 있는 ‘미라’라는 도시의 주교님이셨는데, 가난한 이들에게 많은 사랑을 베푸시고 생필품이나 돈을 몰래 나누어주곤 하셨다고 합니다. 몹시 어려운 지경에 처한 사람이 신발을 문간에 내어놓으면 성인께서 아무도 모르게 돈을 넣어두고 가셨다고 전해집니다. 니콜라오 성인은 그리스 정교회나 성공회, 심지어 루터교에서도 공경하고 있으며, 어린이들의 수호성인이십니다. 12월 6일이 이분의 축일인데, 지금도 유럽의 많은 나라에서는 어린이들에게 선물 나누어주는 날이 12월 6일입니다.

4. 구유



오늘 밤 전례의 큰 특징은 구유 경배입니다. 아기 예수님 탄생의 풍경을 만들어 그 앞에 경배를 드리는 것인데, 인형과 모형으로 된 조그마한 것에서부터 진짜 마구간 만한 것까지 다양합니다. 심지어는 진짜 동물과 사람이 동원되어 아예 연극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풍습은 아씨시의 프란치스코 성인께서 처음 시작하신 것입니다. 성인께서는 동네에서 가장 근래에 태어난 갓난아이를 진짜 구유에 눕혀두고 살아있는 양과 소를 끌어들여 놓고 구유 경배를 하셨다고 합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구유 장식으로는 바티칸의 성 베드로 광장에 매년 꾸미는 구유와 폴란드 크라코프의 구유, 그리고 미국 백악관의 구유가 있습니다. 



한국 천주교회 공용 『주석 성경』 발행

주교회의 성서위원회에서는 교회의 전통과 가르침에 따라, 성경의 뜻을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주석 성경』을 발행합니다. 성경을 열심히 읽고 공부하는 모든 신자에게 큰 도움을 줄 것입니다.

- 4·6배판(B5) 3,868면 / 풍부한 각주, 참고 구절 수록
- 초판 한정 별책 증정 (성경 고유 명사 음역 원칙과 관용·예외 목록)
- 신구약 합본 100,000원 / 신구약 분책 105,000원
- 구입문의 :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02)460-7582~3
- 발 행 : 2010년 12월 25일 / 편 찬 : 주교회의 성서위원회

예수 성탄 대축일 밤 미사

▲ 입당송 [시편 2,7]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 아들, 내가 오늘 너를 낳았노라.

▲ 제1독서 [이사 9,1-6]

〈우리에게 한 아들이 주어졌습니다.〉

▲ 화답송

- ◎ 오늘 우리 구원자, 주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셨다.
- 주님께 노래하여라, 새로운 노래를. 주님께 노래하여라, 온 세상이. 주님께 노래하여라, 그 이름 찬미하여라. ◎
- 나날이 선포하여라, 그분의 구원을. 전하여라, 겨레들에게 그분의 영광을, 모든 민족들에게 그분의 기적을. ◎
-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여라. 바다와 그 안에 가득 찬 것들은 소리쳐라. 들과 그 안에 있는 것도 모두 기뻐 뛰고, 숲 속의 나무들도 모두 환호하여라. ◎
- 그분이 오신다. 주님 앞에서 환호하여라. 세상을 다스리려 그분이 오신다. 그분은 누리를 의롭게, 민족들을 진리로 다스리신다. ◎

▲ 제2독서 [티토 2,11-14]

〈모든 사람에게 하느님의 은총이 나타났습니다.〉

▲ 복음환호송

- ◎ 알렐루야.
- 큰 기쁨이 될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니, 오늘 구원자 주 그리스도가 태어나셨다.
- ◎ 알렐루야.

▲ 복음 [루카 2,1-14]

〈오늘 너희 구원자가 태어나셨다.〉

▲ 영성체송 [요한 1,14]

말씀이 사람이 되셨네.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보았네.

예수 성탄 대축일 낮 미사

▲ 입당송 [이사 9,5 참조]

우리에게 한 아기가 태어났고, 우리에게 한 아들이 주어졌네. 왕권이 그의 어깨에 놓이고, 그의 이름은 놀라운 경륜가라 불리리라.

▲ 제1독서 [이사 52,7-10]

〈땅끝들이 모두 우리 하느님의 구원을 보리라.〉

▲ 화답송

- ◎ 우리 하느님의 구원을 온 세상 땅끝마다 모두 보았네.
- 주님께 노래하여라, 새로운 노래를. 그분이 기적들을 일으키셨네. 그분의 오른손이, 거룩한 그 팔이 승리를 가져오셨네. ◎
- 주님은 당신 구원을 알리셨네. 민족들의 눈앞에 당신 정의를 드러내셨네. 이스라엘 집안을 위하여, 당신 자애와 진실을 기억하셨네. ◎
- 우리 하느님의 구원을 온 세상 땅끝마다 모두 보았네. 주님께 환성 올려라, 온 세상이. 즐거워하며 환호하여라, 찬미 노래 불리라. ◎
- 비파 타며 주님께 찬미 노래 불리라. 비파에 가락 맞춰 노래 불리라. 쇠 나팔, 뿔 나팔 소리에 맞춰, 임금이신 주님 앞에서 환성 올려라.
- ◎ 우리 하느님의 구원을 온 세상 땅끝마다 모두 보았네.

▲ 제2독서 [히브 1,1-6]

〈하느님께서서는 아드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 복음환호송

- ◎ 알렐루야.
- 거룩한 날이 우리를 비추네. 민족들아, 어서 와 주님을 경배하여라. 큰 빛이 땅 위에 내렸네.
- ◎ 알렐루야.

▲ 복음 [요한 1,1-18 (또는 1,1-5,9-14)]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 영성체송 [시편 98(97),3]

우리 하느님의 구원을 온 세상 땅끝마다 모두 보았네.

3대 64년 전통
다이아몬드 예물전문

미성당 귀금속

보석감정 무료서비스 실시, 심플 다이아몬드
커릴링 행사 (가나강좌를 받고오세요)

미국보석학회 공인 국제보석감정사 박제현(비오)

629-9090, 011-541-5415

앞산 순환 도로 (구정북부) (한수원) 미성당 앞산 내리

분도는 한 방울의 기름도 속이지 않습니다!



분도식유

전한 통화면 어느 곳든달려갑니다.

☎ 080-421-5151(무로전화)

242-2240, 743-1977, 957-9543

소중한 건강을 위해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경대연합내과의원

[내시경, 초음파, 호흡기 질환 전문]
[공단검진, 각종 종합검진, 예방접종]

원장·전문의 이 재 욱 바오로
(전 안동병원 내과과장)

☎ 475-3366 Fax. 475-3311

봉덕동 효성타운 효성스포렉스 1층

범어 램브란트 치과

원장 김 대 호 (마 지 아)

범어네거리 삼성증권 옆 남부외과 4층

Tel. 754-2804

www.ilovelamplant.com

월·수·금 오후 9시까지 야간진료

밝은 눈 안과

원 장 임홍식(라파엘) 장주희(헬레나)

전문인 당일수술·퇴원 초음파·내과·라식수술

수술 전문 병원

달성고 맞은편 654-9660

지하철 2호선 두류역(9번출구)앞

이연재 맥 의원

(하지정맥류 전문병원)

원장: 이연재 (메릭)

홍부외과 전문의, 의학박사

대한 정맥학회 이사

652-9777 www.meckclinic.com

서부정류장에서 남대구 IC 방향 200m

연세소아발달연구소

(아동, 청소년, 성인, 가족치료센터)

복지부 치료비 지급(바우처 제도)

매월 1인당 128,000~220,000원 차등 지원

*심리, 놀이, 미술, 음악, 언어, 학습 치료 ADHD 등

소장 조옥형(아네스) / 652-9000

성모아이한의원

- 잦은감기 (알, 비염, 천식, 중이염)
- 틱, ADHD, 식욕부진, 성장
- 난치성 이토피
- 언어(발달)장애, 자폐

대표원장 김 성 철 (비오)

지하철 2호선 성서공단역 8번 출구

☎ 592-1275, 593-1275